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90 목회 지침 : 섬기는 교회

주 각 충 헌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 신년메시지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자



새해가 왔습니다. 충현의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한 해동안에도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도는 다른 해와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의미로는 80년대가 지나가고 90년대가 시작되는 해이며 역사적 의미로는 20세기의 마지막을 정리하여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신년 정초 오늘은 시간의 지평 위에 한밤의 여동이 지나고 한 새벽의 동이 뜨는 일상의 날이 아니라 한 해, 한 연대, 한 시대, 한 세기가 마무리되고 새 역사, 새 문명, 새 삶에로의 전환기를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 사슬에서 해방된 지 45년,
민족의 비극을 가져온 6.25가 난 지 40년,
자유와 정의의 물결이 젊은이들로부터 불꽃터지듯 솟아
졌던 4.19가 일어난 지 30년,
미국의 제 5 공화국이 탄생된 지 10년,
지난 날들의 때를 벗겨보려고 우리의 국회는 지난 연말
자정이 넘도록 고함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새 날이 백번 온다해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사적, 문명사적 대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소리들이 도처에서 들려왔던 지난 해였습니다. 잘못된 과거는 시간 세계에서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단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장 속에서와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의 시간들이 부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도에는 충현교회 성도들에게도 유별난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 성전을 헌당할 지 2년째 되는 도약의 해를 맞이하여 아시아 복음화의 진원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아시아 선교대회(AMC)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되는 것을 비롯하여 세계 선교원 건립의 기초작업이 시작되고 빈약한 형제들을 돌보기 위한 충현복지마을 건설과 사랑의 집 건설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고 교회학교의 질적 진보를 위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교육 연구 위원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교재편찬을 위해 더 많은 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장 연구원을 통해 전국 규모의 목회자를 위한 갱신 프

로그램이 그동안도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얻어 큰 열매가 있었거니와 90년도엔 이것을 국제적으로도 확장시켜 전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행위를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전수시키고자 합니다. 88년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는 영적 각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금년에도 민족의 한이 얹힌 6월 6일을 기해 두주간동안 새벽집회를 통해 있게 될 것이고 8월 20일부터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특별 새벽 집회를 열어 자기 성장과 더불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충현은 민족의 양심을 맡게 해주고 국가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이단 척결, 불의, 부정과 같은 악마의 세력에는 피흘리기까지 대항하여 그들의 뿌리를 뽑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숙원이며 교회의 오랜 기도제목인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도래를 위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을 위해 교역자의 더 많은 헌신과 직분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봉사가 요청되며 조직과 틀에 맞춘 질서를 갖되 동력적이고 생명력있는 운동이 무시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충현은 항상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충현은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 이같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등불이 되도록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 정초에

위임목사 이 종 윤

송구영신 촛불예배 은혜중에 마쳐



여 함심하여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고 교역자, 장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으며 김장인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촛불예배가 이종윤 목사의 인도로 1990년 1월 1일 0시 본당에서 은혜롭게 드려졌다.

촛불과 함께 이종윤 목사를 선두로 핸드벨 콰이어, 교역자 전원이 뒤를 따르는 빛의 등장으로 시작된 예배는 이종윤 목사로부터 교역자에게 빛이 전달되고 장로들에게 촛불이 점화되면서 어둠던 본당은 밝은 빛으로 바뀌어졌다.

젖먹는 아이로부터 노년에 계신 성도들로 꽉 들어찬 본당은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는 각오와 결심의 감격으로 일관되었다.

이종윤 목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라는 제목의 신년메시지를 하였다. 이어서 세계와 국가, 교회와 충현교회를 위하

제직회 · 공동의회

본교회는 연말 특별제직회를 1989년 12월 31일 저녁예배후 본당에서 가졌다. 당회장 이종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직회에서는 90년도에 제직회 각 부서에서 헌신할 일꾼들이 임명되었고 1989년도 결산이 통과되었으며 1990년도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1989년도 결산과 1990년도 예산에 대한 공동의회가 1월 7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리게 되는 바, 본교회 세례교인 전원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교재편찬을 위한 세미나

본교회는 교회학교의 보다 효율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교육연구위원으로 이영덕교수,

(위임목사) 동정

아시아 선교대회 준비회의 주관

교역자·당회원 신년하례식, 기독교실업인회 서울·경기지역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는 구급 12월 28일에 오는 8월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본교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선교대회의 준비를 위해 정진경 목사, 김명혁 목사, 손봉호 교수를 모시고 선교대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를 주관하였다.

한편 위임목사는 지난 1월 2일 본교회 선교관 만나홀에서 있었던 교역자 및 당회원부

부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여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바로 섬기는 헌신의 생활을 해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위임목사는 오는 1월 10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드려질 기독교실업인회 서울 및 경기지역 연합 신년 하례식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

교회안내

주일예배	I부 : 오전 7시 II부 : 오전 9시 III부 : 오전 11시 IV부 : 오후 1시 English Service : 오전 9시 찬양예배 : 오후 7시 ※ III부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불어
수요예배	I부 : 오전 11시 II부 : 오후 7시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소망부, 영어부, 직장전도부, 새가정부, 새가족부, 사랑부, 예배대부, 탁아부,
방송설교	기독교방송(837KHz) 주일 오후 7시
상 담	신앙 화요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6684)
	일반 수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66-5122)
	의료상담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세무 셋째 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전교인 성경통신 강좌개설

본교회 성경연구원은 1월부터 전교인 성경통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강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인들은 주보에 게재되는 문제를 풀어 교구간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성경 강해

초막절의 논쟁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 7:11-13)

이 중 윤 목사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근본적인 문제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 유대인 군중들이 이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물학도는 "그는 모든 세상의 에너지(힘)의 근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한 사상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인은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정신적 지도자였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정치가는 예수야말로 사회 혁명가요 사회를 개혁한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어떤 분은 좋은 분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꼭 연결시켜서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의 준말인데 우리 말로 '아빠'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놀랄 일인데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총살시키는 정도의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도 보통 반역이 아닙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는 내 아버지시고 아바 아버지시다"라고 하셨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시고 뿐만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하시고 모든 구약이 자기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결을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상상도 못할 이 말은 자기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자기를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인간이었습니까? 인간 중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할만한 사람도 없고 한다면 그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2. 그는 선한 사람이라는 말의 가능성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예수님을 귀신들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정신이상자가 들렸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

하다합니다. 독재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전대통령이 총살형을 당하니깐 루마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치는지 제일 좋은 성탄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단이 죽은날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라고 온 백성이 춤을 추었습니다.

인간 독재자의 말로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남은 죽인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웅주의에 빠져서 정신병을 앓으면서 스스로 죽고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런 자 중의 하나라면 예수는 속이는 자치고는 머리가 좋지 않은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 가운데는 제우스, 바카스 등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심지어 반신(半神)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만일 속이는 자라면 그런 동리에 가서 그것을 했더라면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었을 텐데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구원주 메시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속이는 자치고서는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속이는 자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복음서를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스스로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아야"

웅이라고 하지만 소영웅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과신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의 연구를 보면 정신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쥘스레도가 있는데 이 범위를 조금 넘어가면 히스테리가 되고 1도만 높아지면 정신병자가 되고 도가 낮아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인간이 하루에도 몇번씩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만큼 미친 처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권위 있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신병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은 자기꾼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가

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냐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아니했다면 누가 그 앞에 올 수 있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 멍에를 대신 저 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 음성들을 들을 때에 그 부분을 한번 읽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영광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지극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중심적 표현으로 자신을 가르치신 예수님"

아니하더라고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가지의 이야기들이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12절에 '무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콜로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어떤 일을 결정할 만한 지식을 갖지 못한 군중, 혹은 다수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좌지우지하거나 결정을 못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무리, 이들을 군중 혹은 민중이라 합니다. 유대인 종교지도자들과 구별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무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하여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 많은 무리들이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열띤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 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그는 선한 사람이라는 말의 불가능성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 몇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설교와 교훈에는 자기 중심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말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많은 반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며 "나는 무엇이다"라는 직설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응하지만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나사렛 목수가 나타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이상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를 보았다고 하니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예언이요 자기가 그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실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에게 지은 죄도 용서를 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면

초등 4부 김 수 정

오늘은 새해의 첫날 1월 1일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는 어느때보다도 예뻐보였다.

나는 예쁜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를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더러 새해엔 건강해지고 전도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예쁜 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90년도에는 꼭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금을 많이 해서 피아노도 꼭 사고 싶다.

“하나님! 올해에는 감기도 걸리지 않고 전도 열심히 하는 수정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피아노도 꼭 갖게 해주세요.”

주님께 봉사하는 기회

중등부 이 미 안

벌써 내가 이 교회에서 생활한 지도 1년 3개월이 되어간다. 이 기간 동안 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나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처음 친구들의 환영을 받으며 중등부 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귄도 1년 3개월 동안의 믿음의 생활로써 차곡차곡 쌓아졌다.

1990년 나에겐 이 해가 더욱 더 중요하게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젠 중 3 이 되고 또 한 주님께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부모님께서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자 소원이다. 이 밖에 다른 것들이 많겠지만 이 해에는 이 소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싶다.

“주님!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잘 지켜봐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

고등부 장 수 진

항상 새해가 되면 난 상큼한 기쁨과 설레임에 가슴이 부풀곤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 고 3 이라는 심적 압박감과 일종의 공

특집

90년도에 바라는 나의 소망

포심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90년도의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괴로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다. 그리고 대학입시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동한히 하는 일이 없고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 모든 소원을 이룸으로써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고 싶다.

주님의 일꾼되는 소망

청년1부 이 동 준

저는 새해 첫날 아침을 악몽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서둘러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심하게 요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살길을 찾아 정신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더 늦기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꿈이었기에 다시 기억조차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보다 훨씬 더 두려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의 저의 소망은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9년 9월 말경 어느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교사로서의 헌신의 결심을 하게 된 저로서는 새해 아침에 꿈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되기를

에바다부 유 성 열

저는 청각장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자들과는 물론 일반정도들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또한 에바다부를 통해 봉사의 생활을 계속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아름답고 착한 사인행으로 같은 농아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

소극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한 해

대학부 강 윤 석

새해에는 지금까지 습관적이었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더욱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제까지는 총현교회라는 튼튼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앞에 전개될 상황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 하기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새해부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만을 원했던 이기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수준을 벗어 버리고 저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나의 진부인신 주님께 드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민족복음화의 결실맺는 한 해 되길

이 부 성 집사

격동과 변화의 80년대를 영원한 과거로 돌려보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90년대의 첫 아침을 설렘으로 맞이했다.

출세와 명예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 허위적 대며 어둠의 권세의 노예로 지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보다 심도 있게 가꾸어 가도록 노력해야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실천

하며 다시 태어난 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해본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 동안 애타게 기도하고 바라던 민족복음화의 염원이 금년에는, 동구의 민주화 물결의 영향으로 휴전선 넘어 북녘땅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북한 동포와 함께 백두산에 기도원 짓고, 민족화합의 대부흥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힘을 모아 봉사하는 보화

박 은 숙 권사

대망의 90년에는 총현교회가 깊고 깊은 바다라면 권사회는 그곳에 서식하는 많은 산호 숲이 되어 바다 속 고기들을 가득히 모아 들이는 보고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총현교회가 넓고 넓은 우주라면 권사들은 그 중에 많은 별이 되어 새벽이 오기 전에 캄캄한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는 새벽과도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바다와 우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부탁만 하시면 늘 은 육신을 잘 관리하여 느린걸음이지만 뛰고 달리면서 힘을 모아 봉사하는 아름다운 총현의 보화가 되기를 바란다.

오 주여, 늘어서도 결실하며 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와의 정적함을 나타내는 권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오 태 희 장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열광하는 무리들을 떠나 따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시며 깊이 묵상을 하셨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중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직분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특히 일에 쫓겨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묵상을 잊지 않으시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세 기 등

진리의 옷으로 바꾸어 입자

윤 명 식 장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 31, 32)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참 자유자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이것저것 수식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추하게

보다는 아름답게, 바보로 취급되기보다는 현명한 사람으로,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가진 것 많은 사람으로, 무식하게 보다는 유식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사람은 진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차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갈지도 모르니 참으로 애석하고 풀썩하다고 여겨진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거짓으로 꾸며진 경우가 허다하다. 먼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고 매스컴도 진리가 아닌 것을 쓰고 전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가도 때로는 거짓말을 버젓이 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기 위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허영심과 체면 등 우리 자신을 허울 안에 속박하

고 있는 모든 비(非) 진리를 떨쳐버려야만 한다.

지난 80년대를 한마디로 부조리한 시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한 시대였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으며 국력의 낭비와 어둠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파수하고 가르치고 외치지 못했던 책임은 없으며, 교회 안에 언제나 진리가 충만했었다를 판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자유자였으며 비진리가 판을 친 일은 전혀 없었는지 생각해볼아야겠다. 만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다 벗어 던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옷을 바꾸어 입어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새 시대에는 참된 진리가 뿌리 내리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나간다면, 교회 갱신과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숙한 신자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될 것이다.

다음호 세기등은 윤종성 장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근속자 표창 및 원로 추대

원로추대자 25명

근속표창자 63명



본교회에서 봉사하신 제직자들 중에서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과 70세가 되시어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추대식이 1989년 12월 31일 저녁예배시에 있었다.

장로로 25년 근속하신 김기정 장로를 비롯하여 15년, 10년 근속하신 권사, 교사, 찬양대원들의 표창이 있었다. 아울러 제직으로 봉사하시던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원로추대식도 함께 가졌다.

원로추대자 및 근속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은퇴자 : 장로/김기정, 김동삼, 안수집사/이재기, 권사/민원옥, 이영주, 정삼례, 최순자, 김조영, 김택선, 안유향, 박용녀, 임선부, 구절레, 권영자, 백의주, 백도풍, 조두례, 김성애, 안분동, 김종열, 이봉춘, 이홍

순, 박병언, 김옥순, 유정희

근속자 : 근속25년/장로/김기정, 근속15년/권사/지영실, 교사/김승곤, 이실호, 황현철, 찬양대/유정자, 임종숙, 남정애, 근속10년/장로/고병욱, 김경철, 우기진, 손동운, 노광현, 권사/조명숙, 김동욱, 박순규, 김옥래, 공향조, 백영희, 김순현, 김명숙, 장기옥, 장수정, 김중복, 방계운, 최경복, 김 순, 장춘수, 전인화, 최혜영, 윤계준, 김옥선, 신영순, 강유집, 안요섭, 이보영, 김병숙, 장정순, 김동호, 김옥실, 최란수, 김정림, 최경애, 최영호, 교사/박덕양, 박양덕, 박영자, 조영구, 장화숙, 차의숙, 양종섭, 김구형, 박용기, 찬양대/변성옥, 한동숙, 문선옥, 김은숙, 방소애, 한숙원, 조동숙, 장옥순, 정운순, 윤여전

알립니다.

충현지 출판국 편집위원으로 오 전진실 성도가 이 한 해 동안 수 정수 장로, 박철구 집사, 이승철 집 고하겠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 합니다. 충현지출판국

간증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정 홍 식 집사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서 “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등의 족보가 나오나?” 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사실 나도 어렸을 때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느날 나는 문득 ‘신앙 인격의 뿌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신앙 인격이 야곱을 낳았다는 기독교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요, 삶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결국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듯이, 큰 사업에 성공한 뒤에는 부모님의 기도의 거름이 뒷받침 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얼마전 저의 아버지 댁에서 우연한 기회에 35년전에 찍은 할머니 장례식 사진을 보게 되었다. 1955년 6월 15일 무더운 여름, 퇴계로 언덕에 텐트를 치고 발인예배를 주관하시는 김창인 원로목사님 옆에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은 할머니와 같이 7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1954년부터 충현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참된 목회자를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특히 우리 충현교회를 사랑하셔서 강남

의 중심에 두 개의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고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가정과 충현교회는 불가분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즉 할머니의 교회요, 우리 부모님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 자녀의 교회인 것이다. 한국 근대사에서 이치림 4대가 사랑과 피로 맺어져 있는 조직이 교회이외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매주일 교회에서 어머니의 친구, 옛날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또한 내가 가르친 후배 등 수많은 성도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흔히 교회에 실고를 듣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좀 더 확실한 교회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우리가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평생의 도장이요, 학교요, 삶의 공동체인 것이다.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가정도 평안하다. 그러나 한 주일이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 가정 생활도 시들시들 하 여진다. 교회생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여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나 자신부터 교회보다는 회사, 교회 친구 보다는 사회 친구를 우선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금년 1990년부터는 우선 순위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러 한다.

의논드리기 위하여 원로목사님을 찾아뵈어 적이 있었다. “목사님, 남자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40이 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목사님은 인자하시면서 위엄 있는 음성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재산을 얼마 모으겠다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되었는가가가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오직 그릇만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일거리를 맡아주시고, 큰 일꾼으로 쓰실 터이고, 만일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절대 큰 그릇으로 안 쓰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릇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 1990년도는 나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오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이다. 요즘은 재계에 신화적인 화제를 만들고 있는 <이·랜드> <헛트> <언더우드>라는 의류 체인점은 대학시절부터 미래의 기업을 위해 기도하던 젊은 청년들에 의하여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큰 그릇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우리 충현교회 대학생, 청년부의 젊은이들 중에서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나는 요즘 우리 어머니를 뵈면 “어머님, 기도 많이 해 주세요.”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신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질문

1.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시37:4)
4. 하나님께 영광돌려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 1) 마5:16; 뱀전2:12
- 2) 고전6:20
- 3) 고후9:13
- 4) 계16:9



구약공과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과 인생의 최고 목적

성경 : 고전 10 : 31

요절 :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찬송 : 9, 30장

제 1 문 :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조성구 : 시73 : 25~28; 롬11 : 36; 고전10 : 31; 계4 : 11)

설 명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전생애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